





※ 아래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.(11-15)

永州之野產異蛇 ⑦黑質白章 觸草木盡死 以⑧齧人 無禦之者. 然得而⑨腊之 以爲⑩餌 可以已大風  
攣踠 癰 癘 去死肌 殺三蟲 其始 太醫以王命聚之 歲賦其二 募有能捕之者 當其租入 永之人爭犇走焉.  
有蔣氏者 專其利三歲矣. 問之則曰 吾祖 死於是 吾父 死於是 今吾嗣爲之十二年 幾死者數矣 言之貌  
若甚感者 余悲之 且曰 若毒之乎. 余將告于莅事者 更若役 復若賦則何如.

11. ⑦黑質白章을 해석하시오.

12. ⑧齧의 독음과 뜻을 쓰시오.

13. ⑨腊의 독음은?

- |     |     |
|-----|-----|
| ① 석 | ② 소 |
| ③ 조 | ④ 차 |
| ⑤ 초 |     |

14. ⑩餌의 의미는?

- |     |     |
|-----|-----|
| ① 食 | ② 茶 |
| ③ 甘 | ④ 藥 |
| ⑤ 酒 |     |

15.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?

- ① 뱀은 맹독이 있어 초목에 닿으면 초목이 죽는다.
- ② 뱀을 잡아 말리면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다.
- ③ 뱀을 1년에 2마리 잡아 바치면 세금 등을 면해준다.
- ④ 장씨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뱀을 잡다 죽었다.
- ⑤ 장씨는 결국 뱀 잡는 일을 포기하고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.

※ 아래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.(16-19)

蔣氏大感 汪然出涕曰 君將哀而生之乎 則吾斯役之不幸 未若復吾賦不幸之甚也. ㉠嚮吾不爲斯役  
則久已疾矣. 自吾氏三歲居是鄉 積於今六十歲矣. 而鄉隣之生日蹙 ( ㉡ )其地之出 竭其廬之入  
號呼而轉徙 飢渴而㉢頓踣 觸風雨 犯寒暑 呼噓毒癘 往往而死者相藉也. 曩與吾祖居者 今其室十無一焉  
與吾父居者 今其室十無二三焉 與吾居十二年者 今其室十無四五焉 非死則徙耳 而吾以㉣捕蛇獨存.

16. 문맥상 ㉠嚮과 바꿔쓰기에 적절치 않은 것은?

- |     |        |
|-----|--------|
| ① 鄉 | ② 向    |
| ③ 晷 | ④ 曩    |
| ⑤ 疇 | ⑥ 답 없음 |

17. '다하다', '바치다'의 뜻으로 ㉡에 들어갈 한자는?

- |     |     |
|-----|-----|
| ① 彈 | ② 殫 |
| ③ 憚 | ④ 禪 |
| ⑤ 單 |     |

18. ㉢頓踣의 독음과 뜻을 쓰시오.

19. ㉣捕의 독음은?

- |     |     |
|-----|-----|
| ① 도 | ② 보 |
| ③ 포 | ④ 토 |
| ⑤ 호 |     |

※ 아래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.(20-24)

悍吏之來吾隣 叫①蠹乎東西 隳突乎南北 譁然而駭者 雖鷄狗不得寧焉 吾②恂恂而起 視其缶 而吾蛇③尙存 則弛然而臥 謹食之 時而獻焉 退而甘食其土之有 以盡吾④齒. 蓋一歲之犯死者二焉 其餘則⑤熙熙而樂 豈若吾鄉隣之⑥旦旦有是哉. 今雖死于此 比吾鄉隣之死則已後矣又安敢毒耶. 余聞而⑦愈悲 孔子曰 ⑧ 가정맹어호也 吾嘗疑乎是 今以蔣氏觀之 尤信. 嗚呼 孰知賦斂之毒 有甚是蛇者乎. 故爲之說 以俟夫⑨觀人風者得焉.

20. ①蠹의 독음은?

- ① 규
- ③ 표
- ⑤ 효

- ② 교
- ④ 하

21. ㉗~㉓ 가운데 그 의미가 잘못된 것은?

- ① ㉗ 부지런히
- ③ ㉙ 여생
- ⑤ ㉓ 아침마다

- ② ㉘ 아직
- ④ ㉚ 만족스러운

22. ⑦愈의 의미는?

- ① 병 나을
- ③ 즐길
- ⑤ 가질

- ② 더욱
- ④ 구차할

23. ⑧가정맹어호를 한자로 쓰시오.

24. ⑨觀人風者의 뜻을 간략히 쓰시오.

< 明心寶鑑 >

25. 子曰，爲善者，天報之以(     )。爲不善者，天報之以禍。

(26~27)

- 漢昭烈將終，勅後主曰，勿以( ㉠ )小而不爲，勿以( ㉡ )小而爲之。
- 莊子曰，一日不念( ㉢ )，諸( ㉣ )皆自起。

26. ㉠, ㉡에 알맞은 글자를 순서대로 쓰시오.

27. 漢昭烈이 누구인지 두 글자로 쓰시오.

28. 太公曰，見善如渴，聞惡如讙。又曰，善事須貪，惡事莫(     )。

29. 馬援曰，終身行善，善猶不足，一日行惡，惡自有(     )。

30. 司馬溫公曰，積金以遺子孫，未必子孫能盡(     )，積書以遺子孫，未必子孫能盡(     )，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，以爲子孫之計。

31. 景行錄曰，恩義廣施，人生何處不相逢，讐怨莫結，路逢狹處難回(     )에서 알맞은 글자는?

- |     |     |
|-----|-----|
| ① 譬 | ② 臂 |
| ③ 壁 | ④ 避 |
| ⑤ 僻 |     |

32. 東岳聖帝垂訓曰，一日行善，福雖未至，禍自遠矣。一日行惡，禍雖未至，福自遠矣。行善之人，如春園之(     )，不見其長，日有所增。行惡之人，如磨刀之石，不見其(     )，日有所虧。

33. 康節邵先生曰，天聽寂無音，蒼蒼何處尋，非高亦非遠，都只在人(     )。

